

# 세 가지 근본 체험

스기라 12:10, 요한복음 19:17-30

최정웅 목사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취될 말씀, 응답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잘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우리 체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고후5:17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딘가에 초청을 받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다. 3.1절, 굉장히 추운 날에 여러분이 나가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또 잘 했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욕했는데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접을 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의 열매도 맺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1만 3천 명이 모였는데도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랩넨트대회를 치렀다. 광주에서는 센터장이 아예 찾아왔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할 수 있느냐, 놀랍다,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여러분, 태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이들이 자라서 저 시끄럽게 하는 국회도 점령하고, 대통령도 세워서 민족을 바꾸게 되도록 잘 길러야 되겠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았다. 그리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꽃주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이 고난주일이기도 하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성 금요일이 들어있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한다. 이번 주일에, 그동안 목상하던 사사기를 잠깐 접어두고, 오늘 고난주일과 부활절에는 여기에 맞는 말씀을 목상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근본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

지난주간에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을 우리가 다 봤다. 언제 그렇게 바둑을 알았다고, 흥미진진하게 봤다. 전부 급수 단수 다 있는 사람처럼 봤는데, (웃음) 대단하다, 알파고가 대단하다, 이세돌 9단이 대단하다 하고 말이 많았다. 그 대결은 사실 맞지 않는 대결이었다. 오락이나 체육은 급수가 원래 서로 맞아야 하고, 1:1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1202:1이었으니까. 대용량 서버 컴퓨터가 그 뒤에서 지원을 했지 않나. 한 점 놓는 것을 1초 내에 결정하고, 그것을 맞게 했는지 검색을 다 해서 가니까, 한 사람과 붙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처음에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했던 것은 정보가 어느 정도 입력되었겠느냐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해 보니까 엄청난 정보를 집어넣어 두었던 것이다. 수십 명과 한 사람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세돌 9단이 참 대단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 이세돌 9단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웃음) 그 섬에 바둑 학교가 있다고 한다. 목포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섬인데, 거기에서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나왔다. 그 말은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그런 이야기를 먼저 그립어냈느냐 하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집중력에 있기 때문이다. 바둑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제대로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중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착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너무 집착하니가 중독이 되고, 또 무능자가 된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아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제에는 그 덕분에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것 같다. 요즘은 택시 기사들도 그걸 없으면 길을 못 찾는다. 정치인들이 자리에 너무 집착하니가 국가 안위는 온데간데없이 패거리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집중을 빠르게 회복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주일에,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집중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고난주간을 두고, 또 한 주간 진행될 특별새벽기도회 메시지의 방향과 연결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세 가지 근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체험이 오늘부터 모든 침사량 가족들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한다.

## 1. 첫 번째 체험할 것은 갈보리산 체험이다.

(1) 갈보리산이 어디인가?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갈보리산이다. 벰전3:18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를 모든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완성하셨다. 고전15:3-4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당해야 할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자는 말이다. 갈보리산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목상하면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였는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요18:37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진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요8:32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또한 담당하셨다. 한 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갈보리산 체험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면서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십자가는 한 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갈보리산 체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요19:30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망해 버리고 죽어버린 인간을 완전히 다시 살릴 길을 마련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헌금 때문도 아니다. 우리가 뭘 잘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망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며,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3)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신양했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높이 든

노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보리산의 은총을 바라볼 때, 모든 죄짐은 벗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영화 벤틀리를 기억하시는가.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는 문둥병자들이, 뇌성벽력과 폭우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의 질병이 이번 기간에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안 오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며, 여러분의 희망과 비전이 성취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진실로 기도하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활을 부어 주옵소서. 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도록 나의 산업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참사랑교회에도 되어지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응답 받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갈보리산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 속으로 한 주간 동안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 2. 두 번째 체험할 것은 감람산의 체험이다.

(1) “주여, 감람산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행1:3에, 사실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대표적인 장소가 감람산이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가? 감람산 체험을 해야 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분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나라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천사가 응위한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40일 이야기했다는 말만 있고 설명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은 행19장에서 3개월 동안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답답하지 않나?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일부러 자세히 안 썼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게 뭐가 해서 많은 주석을 읽으면서 연구를 해 봤지만 시원하지 않았다. 내가 연구하고 느끼고 믿고 체험한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조영택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훌륭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 3년 동안 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재탕하셨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하셨으니까 여기에 다시 반복해서 쓰지는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창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창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3:15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살내겠다고 했어. 그 일을 내가 한 거야. 성령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배, 통치, 다스림이야. 그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 그렇게 쪽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 지금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마24장,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여기에 또 쓸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기록한 성경은 딱 하나, 신명기다.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하셨을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곤 한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할 때도 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해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일을 다스리시면 된다. “주여, 고난을 주실 때에는 답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3) 감람산의 체험은 또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갈보리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12:28-29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성령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저절로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된다. 이 답을 우리는 한 주간이 되라. 이것 누리게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어제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자기 매형이 목사님이라고 했다.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니, 이분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가. “당신 지금 30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도 됩니까?” (웃음) 뒤에서 감동권 목사님이, “해도 되지 이 사람아!” 30조 만에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인도가 있다.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된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가 왜 성도인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감람산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마.” 더해 주실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보라. 믿으시기 바란다.

## 3. 마지막 세 번째 체험이 마가다락방 체험이다.

(1) 한 주간 동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시48:14에, “이 하나님은 영영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지금 가고 싶으신가? 여러분 목소리를 보면 그건 아닌 모양이다. (웃음) 그것도 할머니들이 아니라. (웃음) 그렇게 이 세상이 좋으신가. (웃음) 나는 아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얼마나 다툼이 심한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인다. 자기 둘이 살면 더 좋다고 열아홉 명의 아이가 그렇게 실종되어 있다. 친부모에게 그렇게 죽지 않았겠느냐 싶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한다. 거미는 자기 어미의 기슴을 파먹고 부활한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 짐승도 그런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때려죽이고 굶겨 죽일 수 있는가. 세상 살 맛이 안 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가. 정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야지, 왜 대구의 대통령이 되나?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옹졸하냐는 말이지. 될 때까지는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 해도, 되고 나면 전 국민을 끌어안고 그 아픔을 보살피고 가난과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재미없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나는 한 가지 기도를 한다. ‘하

나님, 80이면 죽하오니 그때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험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천국 우리 집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모여 가지고는 밀고 넘어지고 난리더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 전할 것이지. 자기들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애야, 세상이 죽어가는데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라' 그랬을 것 아닌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더라.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2)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는가? 주님은 이 답을 주시고 계신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삶의 이유, 삶의 목표가 깨달아지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축원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3) 이 목표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불신자의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 번 당해 봐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라방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마가다라방이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마가다라방의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번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첫 번째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다. 모든 내 짐을 그 십자가 아래에 벗어버리도록 결단하고 방향을 맞춰 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란다. 복음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한 주간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응답의 십자가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이것은 고통, 피로움, 슬픔이 아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이다.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밤낮 기뻐하면서'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 전 교인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왜 산업의 문이 그렇게 안 열리겠는가. 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겠는가. 70인 헌당의 주역이 되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뽑아 봤더니 1억 원 이상 헌금하신 분이 여섯 명이였다. 70명을 찾아 보니까 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여섯 명 중에는 교역자가 두 명이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장로님이 있다. 나머지는 세 명 뿐인 셈이다. 생각을 그래서 해 보라.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나와 후대와 후대의 후대가 누려야 할 교회당을 우리 힘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천만 원짜리가 300명이 되면 거뜬히 해결된다. 30억 원만 갖고 나면 거의 없어진다. 나는 요즘 희망이 좀 있는 것이, 빛이 우리보다 다들 훨씬 많더라. 60억, 90억, 200억. (웃음)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 명단을 보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0년 동안 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보자. 창피해지지 않겠는가. 정말 심혈을 다해 한 분도 있다.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주님만 십자가 지십시오, 나는 안 지렵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겠

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세 가지 근본 체험을 하도록, 오늘 결단부터 내리면 좋겠다. 결정을 바르게 하라.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십자가가 되도록 결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다가, 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십자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다. '내 뒤편으로 서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우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서, 모든 지역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내 아말감 이빨이 금니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웃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아말감 이빨이 황금 이빨이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 특별기도회 기간에, 전부 마음을 정해서 모이시기 바란다. 우리 모일 장소가 입주의 여지없이 들어차서,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역사를 체험해 보도록 기도해 보자. 축복받으시기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세 가지 근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마귀에게도 '참사 랑교회는 이 정도로 응답받는 교회다' 하고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교회 앞에서 참사랑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3.21.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강 메시지

## 하나님의 명령

이사야 6:1-13

최정웅 목사님

우리가 21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어제는 시작으로서 세 가지 체험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받은 갈보리산의 구원이었고,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 체험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분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충만해지면 승리하게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세 가지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게 된다는 말이다. 한 주간 동안 특별기도회를 하는 중에, 6일 동안 짧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전체가 복음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어디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가? 어제 메시지에서 이것을 말씀했다. 우리는 항상 대속의 복음을 깨닫고 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갈보리산 체험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 되었던, 영원한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체험에서 모든 것이 시작해야 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가 구원받았구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결국 갈보리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시116:12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은 갈보리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 멸망한 나, 저주받은 나,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말장게 하신 주님이시다. 그 구원을 주

셨을 뿐 아니라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삶의 의미를 체험하는 것이 감람산 체험이다. 하나님 나라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면,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감람산 체험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삶이다. 이것이 마가디락방의 체험이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사들이, 찬양대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어린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람산 체험을 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두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시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 죄를 용서받는 복음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목상해 보도록 하겠다.

## 1. 천명

우리가 복음으로 중요한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기 시작한다. 천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1) 천명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명령이 아니다.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대를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종말에 직면한 시대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명령을 천명이라고 한다. 천명이라는 말에는 명령의 주체와 함께 시간표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말이다. 바로 우리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에 전도를 깨닫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니까 이 명령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명령이다. 그래서 천명은 절대적인 것이다. 복음 아니면 세상은 살 길이 없다. 이 말이 이해되시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릴 자가 없다. 복음 아니면 세상은 살 희망이 없다. 다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오직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을 어떻게 막겠는가. 저 무기를 어떻게 막고 견고한 인간을 어떻게 막겠는가. 하나님만이 막았다. 중세를 보라.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이 타락해서 세상을 완전히 암흑시대로 만들어 놓았을 때, 광부의 아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법관이 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 이 사람이 신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듣게 된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다. 이 롬1:16-17을 붙잡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서양의 역사가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 그 엄청난 교권과 권력이 사람을 짓누르던 시절에,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안 후스처럼 화형을 당하고 이미 죽었던 존 윌리엄스 무덤에서 쾰집어내어져서 목이 잘리던 그런 시절에, 루터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승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천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때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목상하다 보면, 교회에, 개인에, 가정에, 가문에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재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천명 받은 재벌이 된다. 정치인에게, 교육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다 다르다. 각 자에게 다 다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시야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자기 직장에서 천명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나항님 권사님의 아들은 대단한 친구다. 뉴욕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텍사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전도유망한 학문을 그만두었다. 왜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마다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전달받고, 또 엄마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를 살려 달라고 새벽마다 가족이 함께 와서 기도했던 그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공학을 공부해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가 있다. 개인의 천명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가 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받게 되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천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천명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한다. 고향이 같고 학교가 같아서 표를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명 받은 자가 필요하다.

## 2. 소명

천명 받은 자에게는 그때 비로소 소명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1) 이시야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받은 복음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시야는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음을 붙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이 악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외침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시는 것이다. 다 못 한다고 한다. 모세도 기도온도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했지 않나? 그런데 이시야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린 것이다.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복음운동 제대로 할 제자를 찾고 계신다. 복음운동을 제대로 할 장로님을 찾고 계신다. 복음운동을 제대로 할 권사님을 찾고 계신다. 권위를 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참사랑교회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야 한다. '아,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이 소명을 들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2)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시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한다. 이것이 소명이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무엇이 못마땅하고 그러는데, 내가 명단을 보니까 헌당을 위한 70인이 일어나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1억 원 넘게 현금한 분은 여섯 분이였다. 그 중에는 교역자가 두 명이고, 우리교회에 안 다니면서 현금한 분이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70인에 우리 교인으로는 장로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밖에 없다. 정말 70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만 원 이상 한 사람은 얼마인가? 50명도 안 된다. 300명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면 우리는 내년에 헌당할 수 있다. 사실 못 할 것도 없다. 소명을 듣는 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기에, 내가 그 명단을 뽑아서 보았다. 그것을 보고 나서, '아, 내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천명과 소명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붙이 붙게 된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섬기는 교회를 가 봤다.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라고 해서 감동을 받고 가서 보았는데, 지금 1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다. 그 교회 안내원에게 물었다. "선교사를 몇 분 쯤 파송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말했다. "1500명 쯤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 놀라서) 땅에 주저앉을 뻔했다. 1500명 모이는 교회가 1500명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몇 만 원, 몇 백 달러 보내는 게 아니다. 생활비, 선교비를 완전히 보내는 것이 1500명이다. 얼마나 축복과 응답을 받았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3) 이 소명을 누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갈보리산 천명을 체험한 사람은 감람산 소명을 체험할 수 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홀로서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보라. 교사라면 교사 제대로 하면 된다. 찬양대원이라면 쓸 데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찬양대원의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으면 할 일이 생긴다. 그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때 산업이 되어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직장생활이 되어진다. 그때 일곱 램넛처럼 우리의 삶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된다.

### 3. 사명

이렇게 되면 사명이 보이게 된다. 천명은 누가 명령하느냐 하는 것이라면, 소명은 누구를 향해 명령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사명은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1) 이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나라."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램넛트를 찾아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각 인시키고 뿌리가 내리도록 복음을 잘 전달하라는 것 아닌가. 복음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램넛트를 찾은 것이 이사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2) 이 사명이 있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사가 전 생애를 여기에 드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행1:8이다. 땅 끝까지 가야 할 사명, 램넛트 찾아야 할 사명, 남은 자 찾아야 할 사명 말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 깨달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는다.

결론적으로,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램넛트 이사가 받은 응답이다. 하나님은 이사에게 이 시대를 살릴 원색 복음의 메시지를 주었다. 이것이 사7:14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 망한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이 지구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메시아 언약이다. 구약의 예언이다. 신약에서 성취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마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 사40:30-31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아침에 6일 동안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여러분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43:19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체험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실 새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은 다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계획을 보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기도한다.

2016.3.2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강 메시지

## 이유 있는 삶

사무엘상 17:29

최정웅 목사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두 번째 날 아침이다. 이 옛세 동안은 일심, 전심, 지속을 위한 21가지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목상을 하는 중이다. 지난 주일에 그 시작을 말씀드렸다. 그것이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이었다. 구원이 제일 먼저다.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리스도 누림이 제일 먼저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갈보리산의 그 은총을 입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언약들을 알아야 한다. 영어공부를 한 사람은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면 되느냐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나 하고 물어볼 일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램넛트가 동영상으로 올려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삶에 변화가 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도 마음도 일도 달라진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와 인도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이다. 그래서 언약 붙잡았거든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이 있는데, 이유있는 삶이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내가 여기 온 것이 이유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 1. 당연성

(1) 당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당연이라는 말은,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럴 것임'이라는 뜻이다. 이치로 보아서 마땅히 그럴 것이라는 성질을 당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슨 말인가? 예수 만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규례가 있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규례가 있었다. 행17:2-3에 보면 자기 규례를 따라 행했다고 했다. 장로로 부름을 받을 때,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평신도로, 교사나 찬양대로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때, 어찌 이유가 없었겠는가. 더 적절한 설명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었는가.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 전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곧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한 것이다. 애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당연한 것을 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노예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을 한 것이다. 시키는 것에 이유를 달지 않았다.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신양하거나 반역하지 않았다. 바울은 정권에 도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라고 하지 않았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셉이 끌려가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노예가 되어서는 이유를 달지 않았다.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다.

(3)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면 된다. 나는 장로님 임직을 할 때 권면을 하라고 하면,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서약을 다 하시던데, 저 서약을 오셔서 성경에 붙여 보시고, 가끔 읽어보세요.” 그때 서약했던 그 당연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을 해야 한다. 행 17:2-3, 겔3:18-20, 창39:1-6, 이것을 보면 다 당연한 것이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목동이었다. 목동일 때는 당연히 목동 노릇을 한 것이다.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한 것이다. 매끈한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흔히 있는 석회석 조각들이다. 이것을 던지다 보니까 명사수가 된 것이다. 늑대나 사자가 자기 양을 몰고 갈 때 그것을 던져서 그 머리를 깨뜨리고 양을 되찾아 왔다. 목동 노릇,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한 것이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왕의 재목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연한 이유를 주어서 이 땅에 보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노예의 일을 제대로 한 것이 요셉이었다.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나. 이유를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제대로 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총무가 되었다. 왕의 마음에 들어서 총리가 되었다.

## 2. 필연성

잘 보라. 다윗이 당연한 것을 하니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심부름을 좀 하고 와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음식을 전해 주고, 대장에게 따로 준비한 것도 전해 주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식 교육을 잘 했던 것 같다. “꼭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키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갔는데, 중요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1) 필연성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요셉을 보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다. 감옥에 전염병이 온 것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시체가 나뭇그라져 있고, 사람들이 앓고 죽어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물어주고, 앓는 사람은 물을 끓여서 먹여 주었다.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어야만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뜨거운 물을 먹이고, 찬 물로 열을 식히고,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서 병자들이 치유된 것이다.

(2) 필요한 것을 하라. 대부분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정치인이 당연한 것을 하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한다면 대단한 정치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민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멸망받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늘 설명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 내게 당연한 것을 하시고 필요한 것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 필연성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그럴 수밖에 없는 성질을 말한다. 필요라는 말은, 꼭 소용이 되는 것을 한다는 말이다. 그리 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한다. 행17:6-7에 보면, 바울이 당연한 것을 하다가 보이니까 필요한 것을 한 것이다. 무엇을 했는가를 보라. “발견하지 못하매, 아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기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바울은 도피시키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보석금을 내어서 안정시킨 것이다. 이유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필연적인 삶이다.

## 3. 절대성

(1)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이다. 다윗은 양치기로 심부름을 갔을 뿐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죽었다.’ “너의 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요, 미신이요, 약신 아니냐.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다. 도망하는 사자를 쓰러뜨렸던 다윗이, 가만히 서 있는 골리앗을 못 쓰러뜨리겠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다윗 한 사람이 해결한 것이다.

(2) 상대하여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성질의 것을 절대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버렸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기에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여호와를 설명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다. 감옥에서 필요한 것을 하면서 장관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나야 좋았지만 당신들은 장관이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주다가, 그들이 꾸 꿈 해석해 주면서 필요를 채워준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 것이다. 그것도 요셉 나이 30세가 될 때였다. 애굽의 법으로는,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고관이 될 수 없다. 총리가 되어도 될 나이가 찼다는 말이다. 이때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무도 꿈을 풀 수 없는데, 그제서야 이 장관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전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으니 사정을 말해서 내가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때 풀려나 봐야 그 장관의 종밖에 더 되었겠는가. 그렇게 이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풀 수 없었다. 박사도 점쟁이도 무속인도 풀지 못했다.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요셉이 생각난 것이다. “임금님,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당장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요셉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여호와와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바로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이 청년 요셉을 바로가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사건이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 우리 램넛들도 기억하라. 혹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내가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왔지만, 어찌 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거기에 내 생애를 걸었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빌4:13에 보면, 거기에 결론이 딱 나와 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나 버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렘넌트를 키울 능력이 내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라.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그냥 하라. 하나님의 필요, 이 세상의 필요, 교회의 필요, 가정의 필요, 직장의 필요, 사업의 필요에 응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내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 21가지를 설명을 좀 쉽게 해야 하겠다. 너무 어렵게 하나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을 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정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같보리산 사건이다. 구원이 체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체험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충만이 임하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충만을 체험함으로써, 당연 필연 절대적 삶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2016.3.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강

##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1:1-14

최정웅 목사님

어제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 장례식 다녀오느냐고 검정 양복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하고 있었더니 그랬던 모양이다. 하지만 사실 목사의 복장은 원래 이렇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버트 슬러 목사님,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목사들의 넥타이도 컬러풀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강단에 오르려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모습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삶의 방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웃으면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비웃는 것 같았다. 아직도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아, 그랬다가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애인의 생일에는 꽃다발을 가져다주면서 축하하는데, 엄마의 생일은 ‘생일이었어?’ 하고 지나간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는데, 태양이 고마운 것을 모르듯이, 주님의 은총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목상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어야 되겠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집중의 차이라고 주일에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다. 뉴턴은 어느 정도 집중했는지, 식사하라고 갔다 준 달걀 대신에 회 증시계를 냄비에 넣고 삶았다고 한다. 바둑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갔던 이창호 9단은 운동화 끈을 맨 줄 몰랐다고 한다. 그 정도로 바둑에 집중했다고 한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바둑판만 그렸다고 한다. 영적인 것은 더욱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장치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눈만 뜨면 TV가 24시간 돌아가고, 스마트폰이 24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여러 가지로 분산시킨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또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나까 온 세상이 중독이라는 정신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시대를 치유할 만큼 우리는 오늘 세상 살릴 집중의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집중할 것인가?

### 1. 첫째 방법은 ‘일심’이다.

(1) 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one mind, 한 개의 마음이라는 말이다. 한 마음, 하나라는 뜻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직 복음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일심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다가도 해 보라. 잠이 안 오면 해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는 끝.” 자다가도 인사해 보라. 내 체험으로는 세 번을 넘어가지 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이 일심을 붙잡을 때 시대 살리는 집중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것이 행1:1이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2) 이 일심을 하기 위해서는, 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한다. ‘아, 그렇구나.’ 성경 속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와 열두 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30구절의 기본 복음 성구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일심이 된다. 30구절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 보시기 바란다. 제일 안 되는 게 장로님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태영아부도 다 하는데 말이다. 이번 주간에 30구절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지게 될 것이다.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외워질 것이다. 특별히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외워지게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암송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일심이 된다.

(3)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후대에게까지 일심이 제대로 전달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하려면, 우리 삶에 오직 그리스도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아, 우리 아빠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더니 정말 변했네. 우리 엄마가 정말 변했네.’ 이것을 한 번만 보여줘도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 버리고 뿌리 내리게 된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인지가, 삶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 믿었더니 직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행1:1이 삶으로 체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어디 귀신이 감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가.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것이다. 어디 절망과 좌절, 우울증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일심 하시기 바란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복음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다 참사랑 가족이다. 삼형제가 심부름을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투닥거리면서 따로 가다가도, 은근하게 걱정을 하면서 서로 괜찮은지 보살펴주고 그러더라. 그 모습이 잔잔하게 감동이 되는데, 정작 삼형제는 하나도 안 우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 그게 형제고 자매다. 정말 그리스도로 일심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로 일심 하자.

### 2. 두 번째 집중의 방법은 ‘전심’이다.

(1)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 전부를 드린다는 말 아닌가? all-in이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올-인 하는 것인가? 행1:3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인 하라는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누리는 일에 올-인 하라는 것이다. 눅17:21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고 했다. 영어로는 너희 사이(between)에 있다고 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나? 예수님이 계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누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면 어떻게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의요 진실이요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 해 버리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대교회에 온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식인종인 줄 알았다. ‘이것은 살이다, 이것은 피다’ 하니까. 그래서 의협심 강한 로마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것들을 다 일망타진하리

라 하면서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갔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통속기독교사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은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했다.” 가서 다 살해당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범죄하던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던 옛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나왔다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누리도록 올-인해야 한다. 누가 그러더라. “뭘 좀 재미있는 일 없나?”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 사람아, 요즘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 죄나 지어야 재미있지.” 정말 그런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딱 근심이 없다. 주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당신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재탕하신 것이었다. 신명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미 하셨던 말씀을 꼭 다시 설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서 내용은 행1:3에 기록을 안 한 것이다. 3개월 동안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일어난 일과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계속 3개월 동안 설명한 것이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민수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한 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다시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심 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 는 것이다.

(3)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임할 뿐 아니라, 내 현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가정 직장을 비롯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김성순 장로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국회의원 열 명만 마음이 맞으면 국회를 살릴 수 있고, 스무 명만 마음이 맞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14명이 있었지만 국회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 전부 당리당략에 빠지고, 자기 이익과 권세만 누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두고 올-인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심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열 사람만 그렇게 해 버리면 국회가 달라진다는 것 아닌가? 부산여대에서 어느 학생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의 무질서하고 음란한 복장이 다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찬양을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성악과 다니는 학생이 따라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학교 분위기가 다 달라져 버렸다고 한다.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이 타는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가는 길거리가,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 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올-인 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게 해 달라고, 거기에 올-인 해 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것이 전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면 요셉같은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밤에까지 복이 임했다. 배추와 무에까지 복이 임한 것이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현장에서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 다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 3. 세 번째 방법은 ‘지속’이다.

(1) 여러분, 우리가 영어공부 지속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영어를 못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속을 못 해서 그렇다. 나도 10년 넘게 영어공부를 했었는데도 이제는 말이 안 나온다. ‘What? What?’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다. 지속은 글자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일심, 하나님 나라로 전심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한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하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속의 축복을 꼭 누리야 되겠다. “주여, 지속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었드려 보면, 이것이 내 자리구나 싶다. 이 생활이 나의 24시가 되도록 기도한다. 교구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 성도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주일학교 학생은 자기 반 학생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장로님과 권사님, 중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인가? 이 지속의 목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다. 행1:8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하는 말을 52년 만에 내가 보게 되었다. 류목사님이 성경 봐도 못 보고 있으니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도 성경을 보면서도 못 보고 있었다. 류목사님이 복음 안 되면 성경 봐도 소용없다 하는 말은, 복음 중심으로 보라는 말이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성경 안 읽고 복음만 붙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다. 증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일심, 전심 하라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이 뿌리내리는 주제를 잘 잡은 것 같다. 50주년까지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축원한다.

(3)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식생활 바꾸는 것도 지속하면 되는데 얼마 하다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속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읽기를 지속하고 기도하기를 지속하고 하나님 목상하기를 지속하고 하나님 통치받기를 지속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의 방법도 주셨다. 그것이 성령충만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시면 권능이 있으면 된다.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란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낙담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인본주의가 나오고 세상 것이 나온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 변영하고 형통할 때는 타락했다.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다 받았으니 이제 현금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가 3년 째 선교비가 모자라고 있다. 선교비가 모자라면 교회가 안 된다. 선교비는 항상 넘쳐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희가 바로 쓰는구나’ 하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충만받고 권능 받는 것이 지속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후대가 성령충만을 체험함으로 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속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행1:8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행2:1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 버린 것이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3천 제자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다. 절기 때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때 통변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15나라에서 온 교포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다. 동시통역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행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후자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밤새 소리치르는 것이고 전자는 동시통역의 방언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행1:14의 집중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다. 행1:1-11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일심, 전심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지속해서 기도한 것이다.

(1)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목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나? 복음 뿌리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음을 같이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다. 일심 한 것이다.

(2) 교회의 훈련과 흐름의 시간표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전심이다. “오로지 기



도에 힘썼더라.” 모든 불신앙의 말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불신앙의 말, 비판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 습관을 안 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게 자녀에게 심어진다.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자녀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45년 동안 봤다. 우리가 그것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뿌리내려져야지,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나.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쳐야 한다. 고칠 수 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 모든 더러운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계속 기도하라. 어느 날부터 불신앙의 말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신앙이 심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열두 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두 사람은 된다고 하고 열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가? 열두 명이 다 현상을 보았는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열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매뚜기와 같았다. 가만 죽는다고 했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는 성경과 맞아야 한다. 교회의 시간표, 훈련의 시간표와 흐름에 완전히 복종하시게 바란다. 이것 안 되고 있는 분이 몇 명 있다고 들었다. 개인 제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것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개인 사역을 하더라도 교회 흐름을 따라야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당신이 교역자가 아닌데 교역자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교역자의 말을 들으면 고쳐야 한다.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목사가 필요 없게 되어버리지 않나? 내가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였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들어가 버렸다. 웅성거리고 있는데, 깡패였던 성도 한 분이 일어나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모신 전도사님 말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이 자기 주장을 굽히고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깡패 말이 무섭다고 겨우 들으면 되겠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전심 했다는 말이다. 모든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로 들어가서 완전히 훈련 받으시기 바란다. 훈련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회에서 훈련이 있으면 모든 개인 것은 접고 같이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란다. 너무 잘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안 된다. 어떤 분은 구역장 안 하겠다고 하더라. 왜냐 했더니, 자기가 맡았던 구역역을 돌로 나눴다고 섭섭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기 제자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라가서 구역원들이 개인 제자가 되어서, 구역장 따라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따라간 곳에서도 마음을 못 붙이고 망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셔야 한다. 그래서 훈련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

(3)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다. 이것 끝나고 나면 중직자 전체가 나와 같이 집중훈련을 하자. 3일 만이라도 좋다. 3일 저녁이면 왜 못하겠는가. 직장 끝나고 와서 하면 되지 않나. 3일만 집중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자기가 안 되는 것이지 왜 전체가 안 된다고 하는가. 다시 일심, 전심, 지속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 우리는 너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한다. 사람의 말이 너무 많다. 모든 사람의 말을 지우고, 행2:1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는다.

2016.3.24.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4강 메시지

## 하나님의 증거

사도행전 3:1-10

최정웅 목사님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계 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애플사에서도 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이 회사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

는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스템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최초로 만들어낸 창조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창조의 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 전 백성을 먹여살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나라에서도 이것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 창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접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는 것이다. 초청을 받아서 뉴욕 맨해튼 아파트 31층에 올라가 봤는데, 집세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모른다. 거기 살 돈이면 다른 데서는 궁전 같은 곳에 산다는 것이다. 그래도 코앞에 브로드웨이가 있는 맨해튼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거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캣츠 같은 뮤지컬은 10년 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포스터를 자기 백인인 남편이 그렸다는 것이다. 오래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쓱쓱쓱 하더니 그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귀신들린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일이다. 마약도 그래서 하고, 그런 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고 집중하다가 창조의 힘을 얻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엘리트들의 현상이다. 3단계의 전략이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진짜 창조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끝이기 때문에, 성령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 넷째 날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다. 오늘 오직의 증거, 유일성의 증거, 재창조의 증거를 가지고 흑암 시대를 이기고 뒤집는, 응답받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한다.

### 1. 오직의 증거

(1) 첫 번째 증거는 오직의 증거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증거는 이것이다. 행1:1,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세상은 많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회미했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2) 이 오직 복음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이제 오직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3)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기도 속에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 성령충만이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충만하게 될 때만 해결된다.

(4)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다. 이 오직의 비밀을 알게 된 베드로가, 제 구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답으로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마가다라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성령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 이 구절을 봐도 이해가 된다. 다시 성전에 간 것을 보면, 오순절에도 틀림없이 성전에 갔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으로 변화되면, 오직으로 증거를 얻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는다. 내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충만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직, 오로지, 다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 번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오직의 삶이 바로 집중이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한다.

### 2. 유일성의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뭐라고 했는가? 유일성의 증거가 그러면 온다는 것이다.

(1) 지금 복음과 전도와 기도라는 답을 아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현장을 보게 되었다. 38년 된 앓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성전 문 앞에서 본 것이다. 지금은 이 문이 돌로 막혀져 있다. 성전의 감람산 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예배했었다. 지금은 막혀 있다. 이 앓은뱅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문 앞에 앉아서 삼십여 년 동안 구걸을 했으니까.

(2)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모르고 있었다. 베드로도 몰랐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보인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구걸을 하며 자기에게 동전 한 푼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이 보인 것이다. 그냥 육신적인 문제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었다. '가난해서 구걸하는구나.'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육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앓은뱅이의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날 아침에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아, 저것은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저주구나. 저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을 주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고 동전도 던져 주었지만, 이 앓은뱅이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알게 되기를 축원한다.

(3)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흑암을 꺾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성의 증거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유일성이라고 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유일성이다.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날이 오게 된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악령의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대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화평과 양선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이 유일성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번 주간에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 3. 재창조의 증거

(1)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 재창조의 증거다. 고후5:17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전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은으로도, 금으로도 될 수 없는 진짜 변화, 근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돈 한 푼으로 안 되는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나면서부터 있었던 앓은뱅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근본의 변화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는다. 주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삶에도 주님 모신 이후에 새 사람 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생각에, 마음에, 말에, 직업에, 하는 모든 일에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라. 이 변화는 외적인 임시 변화가 아니다.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일어나는 근본 변화다. 이것이 육신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2) 그 열쇠가 무엇인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새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그 이름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앓은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세기 1:27-28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내가 용서받게 되었다.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청소년, 램넛에게 특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공부하면서 성령충만을 받지 말고, 성령충만 가운데서 공부해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머리에서 뭐가 툭 터지는 것 같았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툭 터지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이 창조하셨던 이 역사가 나에게 다시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램넛과 중직자가 가는 곳에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경험한 요셉의 역사였고, 다윗의 역사였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역사였다. 참사랑 가족들이 가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결론적으로, 이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기 위한 실천을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1) 첫째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한다. 오직 예수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여기에 결론이 나와 한다. 우리끼리 쓰는 말이, "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욕심 부리는 사람을 보면,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이다. 그 속에 다 있다.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하는데, 그 속에 밥도 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을 정말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직의 증거를 위한 실천이다. 여러분, 결론이 꼭 나시기를 바란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결론 나와 한다.

(2) 그러면 두 번째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아,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구나.' 이것이 유일성의 증거가 된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축원한다.

(3) 그러면 세 번째로, 이때부터 내 삶에 성령충만과 권능으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이 되면서 하나님의 힘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가슴 속에, 행1:1, 3, 8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았다. 이번 주간에 정말, '아, 정말 오직이구나.'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 마음에 이 '오직'이 되면, 이것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존신자를 훈련시켜서 훌륭한 신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의 '예' 자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 사람만 교회화 시켜 버리면 그 사람의 생애는 끝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 우리 참사랑교회에 오늘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시간표

로마서 16:25-27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다섯 번째 날 아침이다. 한두 사람씩 줄어가는 것 같은데, 내일 마지막 아침에는 전 교우들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은 성 금요일인데, 연중 날짜로 하면 2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 금요일이다. 한주간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고난을 겪으셨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주일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주일이었다.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월요일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고, 성전에 가 보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다. 교회에서 우리도 참기름도 팔고 바자회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목상하는 곳이지, 뭘 파는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주신 분복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치는 것일 뿐 아님이 해서 그런 것을 다 없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캠프 나가려고 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이 성전 정결의 날이다. 화요일은 대논쟁의 날이라고 한다.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과 하루 종일 논쟁하셨다. 세금 내는 게 옳으나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셨다.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다. 베다니에서 아마 하루를 쉬시지 않았는가 한다. 그래서 대체로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말을 삼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을 하지 않고 묵상하는 날로 지낸다. 말을 안 해 버리는 날도 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나. 침묵의 날이다.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의 날이라고 한다. 성만찬을 베푸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기슭의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나는 겻세마네 동산을 차에서 지나가면서만 보았고, 직접 주님이 기도하셨던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거기에 엎드려 기도해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더운 날에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안 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흐르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다. 갈보리산은 시온산,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한 산인데, 새벽에 예수님은 계속 재판을 받으셨다. 안나스의 뜰에서 가야베에게, 또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관계 없다'고 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때 뇌성벽력이 치고,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땅이 크게 흔들렸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주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눈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론 와이어 트라는 학자는 언약궤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갈보리산 아래에 있었던 동굴에 감춰져 있었고, 예수님의 피가 그 언약궤 위에 흘러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속죄 의식을 완전히 만족하는 일이 된다. 오후 세 시에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해가 넘어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 위에 둔 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시체를 치워 달라고 총독에게 이야기했더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 강도는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이 하루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

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신 그런 날이다. 스가라 3:9의 말씀대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완전히 제거한 그런 날이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또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은 영원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신 것이다. 주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시간을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도자의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 1. 24시

(1) 24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다. 일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바로 24시간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시간을 주셨다. 이 시간을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고 누리는 24시간이 되라.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거기에 두라는 것이다. 이 하루하루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24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한 바도 된다.

(2)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무시기도,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집중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24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어떤 분은 꿈 속에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러면 원수가 왔다가도, '아, 안 되겠다' 하고 고개를 흔들고 도망가게 된다. 이런 24시를 살자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빈 시간을 기도로 바꾸면,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스케줄이 깊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런 생활을, 캠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수첩을 하면서 지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연결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 누구를 대해도, '하나님,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옵소서.' 계속 할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줄 수 있으며,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할 때는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도 만남도 시간도 복음으로 연결되는 24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행1:1,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4시의 응답이다. 오늘은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가능하면 부딪치지 말고, 다 용서하고, 가능하면 오늘 하루는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란다.

### 2. 25시

(1) 이렇게 하고 있으면 25시의 증거가 온다. 게오르규라는 사람이 25시라는 작품을 썼는데,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24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인간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시간과 수준을 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힘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된다. 헌신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받을 때에는, 특별히 교회가 명령할 때에는, '저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셨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결단이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엄마 노릇에 승리하시기 바란다.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물 고문을 해서 죽이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가 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단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2) 우리에게는 25시,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3)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24시간 노력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맹목적으로 귀신 섬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25시 능력은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임해 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동원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며 일하시는데,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전혀 없었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꺾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단계를 25시라고 한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내 일 속에 행1:3,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써 25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3. 영원

(1) 이것은 반드시 영원과 잇대어져 있다. 그리스도를 24시, 하나님 나라를 25시 누리면, 이때 오는 응답은 전도의 문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 행1:8에, 성령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것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도제자의 증거 자료로 남게 되는 것이다.

(2)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작은 헌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의 응답은 사실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된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천국까지 따라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에 와 있다. 몇 사람이나 와 있겠는가. 기존신자 붙잡고 애쓰지 말고, 정말 복음 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서 가시기 바란다.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 하러 붙잡고 있는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도전해라.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순교했다. 정지태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분인데 길거리에서 IS에게 살해당했다. 참혹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전도자들이 참으로 생을 걸어야 하겠다. 이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을 드리겠다 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이 생명은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 믿는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앞에 상이 무 하나만 있더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 하길래 무 하나를 뽑아 던져줬다는 것이다. 그것 하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몇 사람이나 와 있을 것 같은가? 바울은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상급이 천국에서까지,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작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후대들의 모델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란다. 후대들이, '나는 이장로님처럼 될 거야, 김장로님처럼 될 거야' 하도록 하시기 바란다. '저 사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일곱 렘넌트들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요원들이 받은 것처럼 백 년의 응답, 천 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원의 응답으로 남는 작품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다. 찬송가 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영원에 잇대어 살

아가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다. 김정준 목사님의 찬송시인데,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이다. 그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다. 마산요양원 시체실까지 들어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시편을 연구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셨는데, 우리 신학교 사경회에 강사로 오셨었다. 우리끼리, '우리 학장하고 저분 바꾸자' 할 정도였다. 그분은 숨이 막혀서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 그분이 쓴 시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번 일주일 간의 기도회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 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청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여러분이 부른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지나갔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실들이 '영원에 잇대어'지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다. 주님은 공생애 3년과 고난주간 한 주간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셨다.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자기 인생을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흘러가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남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의 응답을 받는 작품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두셨던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지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내 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영원의 응답을 후대에게 남기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날이다. 이 가시가 머리를 찢어서 피가 흐르셨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 국가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다. 이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2016.3.26.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6강 메시지

## 하나님의 계획

데살로니가전서 1:1-10

최정웅 목사님

'갈천일당오이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태정태세문단세 외우듯이, 갈천일당 오이각이라고 외우면 된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리방, 천명·소명·사명, 일삼·전심·지속, 당연·필연·절대, 오직·유일성·재창조, 24·25·영원, 그리고 각인·뿌리·체질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 글자를 가지고 21가지를 외울 수 있다. 출발이 어디인가? 갈보리산이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그리스도, 마가다리방에서 힘을 주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것이 첫 번째다. 복음운동의 21가지는, 이렇게 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무슨 전도가 진짜 전도인가? 삶의 전도가 진짜 전도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히로시마 참사광교회에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은 굉장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참사랑 가족들이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주의 몸 된 교회가 서는데,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주민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한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이 음부에까지 가셨다고 했다. 사람이 되어서 침 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데 죽음까지 당하셨다. 인간이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기 위해서였다. 히브리서 9:22에, 죄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룬 와이어트의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일 수 있다. 속죄소에 피가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21가지 삶을 목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왔다. 그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는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60명 훈련된 사람이 유럽에 잠입했으니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른다. 도둑 한 사람을 100사람이 못 잡는 것과 똑같다. 메르켈 총리가 공황한 마음으로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참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10년 후에 저것이 불씨가 되고 화약이 되어서 유럽이 다 망할 텐데, 저것을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다. 저 사람들이 10%만 되면 나라를 휩쓸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유럽 전체로 몰릴 듯이 파고들어왔다. 테러리스트가 몇 명만 들어와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60명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나? 난민이 200만 명이 들어왔는데, 다 IS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공간이 큰 사람들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손을 뻗고 있다. 각 대학에 대학생으로 들어왔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는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헌팅턴은 두 문명의 충돌로 지구에 위기가 올 것을 예언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때에, 저주와 재앙,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성격과 다른 그릇을 주셨다.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다.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다 하고 말할 수는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성격과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성격과 그릇은 전부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 문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유럽 사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흑암 종교에 그대로 잡혀 있으니까 전혀 적응을 못 하다가 문제를 만나서 테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우리와 후대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을 받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오늘 아침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 1. 각인

(1)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계획 첫 번째는,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는 것이다. 잘못 각인된 것 말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각인이 딱 되어 있다.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전부 성공 중심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가 각인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가 시작되지만,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싶다. 정치가 그렇게 악에 받혀서 오기로 싸우는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참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싫다. 정말 악한 세상인 것 같다.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것인데, 우리 후대가 이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가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속에 있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

(2)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행1:1,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각인을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가슴, 예수의 생각, 그분의 모든 것, 그의 나라의 일로 우리 삶이 새롭게 각인되기를 축원한다. 깜짝, 깜짝 놀라야 한다. 아직도 내 마음에 더러운 시기와 질투, 음란과 악한 것들이 여전히 각인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면서,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란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심겨진 각인을 빼내야 한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 악령은

성령으로만 쫓겨나기 때문이다. 루아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3)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각인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행1:1이 각인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신경질이 나는가? 아직도 빠져나가야 할 각인이 있다는 것이다. "주여, 오늘도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가도록,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옵소서."

## 2. 뿌리

(1)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문화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무수,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완전히 뿌리내려져 있지 않은가. 무수, 점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들, 담배냄새 안 맡고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지금도 어떤 목사는 담배를 피우더라. 그거 더러운 습관이다. 그것 피우는 게 복음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골방에 모여서 할아버지, 아버지 상자에서 훔쳐온 담배를 피워 봤는데, 나는 한 번 빨아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다시는 못 하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한 적이 없다.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 세 딸은 수지맞은 것이다. (웃음) 우리 손녀가 자는 곳 아랫집에서 아저씨가 계속 불을 피우는데, 이게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 일인지 모른다.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은 것이다. 이것이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야 한다. 신문만 펴면 아직도 무수, 점술 기사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장난이라 하면서 다 본다. 그런데 그게 계속 뿌리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화되어 있지 않나. 무서운 것이다. 우리 민족, 전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 동남아 현장은 특별히 더 심한 것 같다. 선진국은 더하다. 걸로 봐서는 모른다.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제일 못한 집이 500만 달러다. 베이 에어리어(bay area)로 향해 있는 집은 천만 달러를 호가한다.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싶는데,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면 상상도 못할 것이 가득했다. 정신병자가 너무 많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던 것이 조상 때부터 깊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우리 뺏속, 핏속에 그렇게 흘러 왔던 것이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 뿌리는 영적 문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째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다.

(2)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1:3에 말씀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뿌리를 바꾸어야 한다.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으로 뿌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라. 늘 천사와 함께 살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살라. 뭐가 안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악령을 몰아내라. 환경, 삶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악령의 세력을 쫓아내라. 그것을 결박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대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집을 빼앗을 수 없다. 지금 경제 현상이 위기를 만났다. 곳곳에서 파잉 생산으로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구는 온난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라. 급할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살라. 지금 현장에 창3, 6, 11장과 행13, 16, 19장의 문화가 가득하지 않은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링컨은 집무실에 기도처를 만들어놓았고, 전쟁 중에도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했다. 시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큰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기도하고 가더라고 했다. 알고 보니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살려 달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서 기도

했는데, 결국 남북을 통일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인류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과 그 문화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으로 뿌리를 바꾸면,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자신과 후대의 삶과 문화의 뿌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란다.

### 3. 체질

세 번째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금식을 45일을 했더니 몸이 12kg가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옷을 새로 해주셨다. 지금은 그게 들어가지도 않는다. (웃음) 원상 회복되어 버렸다. 이 체질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방법이, 계단을 계속 오르라는 것이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가 걸어서 올라오는 것을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4층까지 걸어올라오니까 숨이 찬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서재도 4층이고 집도 4층이었는데, 맨날 걸어올라 다니다 보니까 다리 힘이 강해져서, 그 힘 가지고 해외 집회를 늘 다닐 수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같으면 한 번 갔다 오면 반 죽을 텐데. (웃음) 우리는 그래도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 체질이 너무 중요하다. 뭔가 특별한 걸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한다. 제일 좋은 엄마, 제일 좋은 아내는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닐까. (웃음) 가족 문화를 바꾸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식단도 안 가지고 살지 않나? 냉장고에 그냥 들어있는 것을 내어놓고, 아침 먹다 남은 것 점심에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저녁에 먹고 (웃음) 그렇게 해서 일 년을 사는데 참 기적이다. (웃음) 일본에 가서 밥을 먹어 보니까, 뭘 먹더라도 칼로리를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과학적이다.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가져다 퍼 주는데.

(1)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 삶의 체질, 신앙생활의 체질, 영적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도록, 행1:8의 성령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 체질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체질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한다. 바꾸어야 한다.

(2)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읽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내 삶의 색깔로 변화되어 버리게 된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내 삶의 색깔과 체질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쉽지 않다. “나 다 아는데요?” 뭘 아는가? 행하지 않는데. 정말 아는 것은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다. 지와 덕이 합일되어서 아는 것을 참된 앎이라고 한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정말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3)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살전5:16-18이다.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체질이 되어지도록. 나도 이번에 뭐 좀 된 줄 알았는데, 새벽기도 계속 하면서 체질이 완전히 복음화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당하니까 신경질부터 나는 것이다. ‘야, 이 체질이 또 올라오는구나.’ 얼굴이 벌개지면서 화가 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계속 해도 화가 안 풀리는 것이다.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살아가 하나!’ (웃음) 이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끝나면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면서. (웃음)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세상 들어가면 얼마나 험한지 모른다. 의정부에 살 때 보니까, 미군부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나오면 다 망하는 것이다. 안 망하는 사람이 없다. 바깥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 버려야 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복음 체질이다. 귀한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 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시작해야 한다. 갈보리산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모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세상 이야기를 계속 하면 매일 다른 이야기, 불신앙과 불평만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정은 이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악령을 결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황폐함을 완전히 뒤집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 새벽기도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영적인 황폐함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다. 그러는 동안에 현장과 램넌트의 상태는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황폐한 지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해야 한다. 정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예수 생명이고 예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런 현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달라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가정과 민족과 산업과 현장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모든 무덤의 황폐한 상태를 뒤집어 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메시지였다. 주제가 무엇인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한 마디를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만 들어도 다 살아나게 되었다. 이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모든 각인, 모든 뿌리, 모든 체질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충만으로 바꾸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참사랑 교인들이래’ 하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리스도로 꼭 찬 사랑들이래. 저 사람들 하는 것 좀 봐’ 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자녀가 하는 일은 다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고전10:31이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 모인 이 인원이 새벽기도를 계속 한다면 우리교회는 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새벽기도는 전 교인의 십일조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자, “갈천일당오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생각하고, 정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옆의 사람을 축복하자.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 복음 체질, 전도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자 세우는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만 이 일이 되겠사오니, 주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25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모와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내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한 주간 수고한 모든 참사랑 가족들 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모든 아들들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참사랑 가족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